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06. Vol 16. No 1, pp. 21-42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김인혜(경원대학교)

박정옥(경원대학교)

최문경¹⁾(경원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국내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양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시대에 따른 영재교육의 사회적 인식과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의 기간은 3기로 나누었고, 관련기사의 내용은 영재교육의 동향, 영재교육 정책, 영재교육 정보, 사회 환경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양은 시기별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이후에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영재교육이 정착화 됨에 따라 영재교육 관련기사도 점차 영재교육 전반에 걸쳐 큰 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1기에는 체제와 제도에 관련된 기사가, 2기와 3기에는 영재교육기관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이는 1기에는 영재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통해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착되었고, 2기와 3기에 영재교육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영재교육 기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영재, 영재교육,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 교신저자 : 최문경(cmk0128@chol.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각 분야에서의 우수인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도 특정분야에 얼마나 많은 인재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에 대응할 고급 두뇌 양성 정책이 미흡하고 지속적인 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과 수준의 영재교육이 절실하며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영재에 대한 교육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체계화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분야와 다수의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으로까지 정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시스템의 마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적·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강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영재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이 또 다른 사교육 열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 가면서 영재교육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대중매체 중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시사성을 띤 매체는 신문이라 할 수 있다. 그 시대의 신문에 나타난 교육기사는 당시의 교육의 현실적 관심이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교육적 관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형성하도록 한다(조영업, 1975). 따라서 신문을 통해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의 교육상황이나 문제, 대중적 관심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시대의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올바른 영재교육의 정착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문기사에 나타난 영재교육에 대한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시기에 따른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영재교육의 경향과 영재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신문에 나타난 영재교육 관련 기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관련 기사의 양과 내용에 대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경향을 살펴보고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99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국내주요일간지(국내 독자율·열독률 순위로 4개 신문사 선정)에 게재된 영재교육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5년 조기취학에 관한 법률제정시기와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 시기를 전환점으로 설정하여 1990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 발간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체 기사 내용 중에서 '영재', '수재', '천재', '신동', '재능아', '우수아'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 결과 나오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사 중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영재교육에 부합하는 영재관련기사로 한정했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극히 사교육적인 내용은 제외시켰다.

2. 연구 대상의 분류 기준

가. 내용분류의 기준

공교육제도권 안에서 영재교육이 도입된 역사가 짧아 자료가 제한적이었으며, 영재교육을 주제로 기사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지 못한 관계로 교육관련 신문기사와 유아 및 아동관련 신문기사 및 잡지 기사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내용분류 기준을 선정하였다.

안인식(1986)의 연구에서는 1960년에서 1979년까지의 두 신문사의 교육 관계 기사를 교육이념 및 목적, 교육정책 및 제도, 장학 및 학사지도, 교육내용 및 교과서, 사회교육, 교육행사 및 해외교육,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정영성(1990)의 연구에서는 1989년 8월 1일부터 1990년 1월말까지 조선일보에 나타난 교육관련 기사를 기사의 내용별, 학교의 단계별, 기사의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재학(1997)의 연구에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선일보에 게재된 교육 관계 기사를 학교단계별, 기사내용별, 기사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를 다시 세분화한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유아교육관련기사를 분석한 연구에 있어서는 하병숙(2001)은 유아교육 전체의 범위를 포괄할 수 있게 유아교육의 이론 및 동향, 유아교육 정책과 제도 및 현황, 육아와 유아교육정보 및 부모교육, 사회 환경 및 복지,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한경선(2003)은 여성잡지에 실린 아동 관련 기사를 육아상식 및 정보, 유아교육정보, 부모역할 및 양육태도로 나누는 후에 각 항목마다 세부적인 주제로 나누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재교육을 포함하는 영재에 관련된 모든 기사를 수집하여 영재교육 전문가와 분류기준을 최종 결정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나 영재교육 전체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에 대한 여러 주제 중 영재교육과 관계가 깊다고 파악되는 네 가지 주제 -영재교육의 동향, 영재교육 정책, 영재교육 정보, 사회 환경으로 그 분류기준을 세웠으며 이에 관련된 기사 내용을 다음 <표 1>과 같이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집, 분류하였다.

<표 1> 내용분류 기준 및 세부 항목

내용 분류 기준	세 부 항 목
영재교육의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인식 · 영재교육의 방향 및 발전과제 ·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 및 해외동향
영재교육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에 관련한 체제 및 제도 · 영재교육 관련법 · 영재교사 · 영재교육기관 · 영재교육에 관한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
영재교육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아의 특성과 판별 ·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과 방법에 관한 정보 · 영재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
사회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관련 행사 및 세미나 · 영재아 및 영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 · 영재관 · 영재아의 진로 및 활약

나. 시대구분의 기준

1995년 조기취학에 관한 법률제정시기 전후와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 시기 전후의 영재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1990년부터 2003년까지를 1990년에서 1994년까지를 1기, 1995년부터 1999년까지를 2기, 2000년부터 2003년까지를 3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시대구분에 따른 영재교육에 대한 기사의 양과 내용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인 네 신문사의 영재교육 관련 기사를 추출하기 위해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였다. 인터넷 기사검색 홈페이지인 <http://www.kinds.or.kr> 와 <http://www.moadream.co.kr> 에서뿐만 아니라 해당 신문사 독자정보센터에서도 기사를 수집하였다. 인터넷 기사검색에 사용한 키워드는 '영재', '수재', '천재', '신동', '재능아', '우수아'로 제목뿐만 아니라 키워드가 기재된 내용까지 검색하였다. 내용 분류 기준으로 분류 시 제목과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2가지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내용에 따라 더 가까운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내용 별 분류의 경우에는 내용 분류의 신뢰성을 위해 본 연구자와 함께 아동학 석사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보조연구자 2인이 기사를 내용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들 간에 자료 분류 범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사의 내용을 다시 읽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시기별, 내용별로 분류한 기사의 양을 직접 세어 양적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내용 범주별로 분류된 기사의 내용을 직접 읽으면서 범주별 경향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영재교육 관련기사의 양적 변화와 사회적 인식

국내 주요일간지의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게재된 영재교육 관련기사 전체의 시기별, 내용별 양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전체 기사의 시기별, 내용별 양적 변화

기사수(이전시기대비증감율)

내 용		연 대	1990-1994 1기	1995-1999 2기	2000-2003 3기	합계
영재 교육의 동향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인식		15(1)	13(-0.9)	11(-0.9)	39
	영재교육의 방향 및 발전과제	42 (1)	14(1)	18(1.3) 49 (1.2)	22(1.2) 81 (1.7)	54 172
	연구 및 해외동향		13(1)	18(1.4)	48(2.7)	79
연평균기사수			8.4	9.8	20.2	12.3
영재 교육 정책	체제 및 제도		24(1)	12(-0.5)	17(1.4)	53
	관련법		2(1)	10(5)	11(1.1)	23
	영재교사	56 (1)	0(1)	1(2) 77 (1.4)	2(2) 143 (1.9)	3 276
	영재교육기관		15(1)	30(2)	69(2.3)	114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		15(1)	24(1.6)	44(1.8)	83
연평균기사수			11.2	15.4	35.8	19.7
영재교육 정보	영재아의 특성과 판별		4(1)	8(2)	11(1.4)	23
	교육내용과 방법	7 (1)	0(1)	3(4) 16 (2.3)	12(4) 31 (1.9)	15 54
	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		3(1)	5(1.7)	8(1.6)	16
연평균기사수			1.4	3.2	7.8	3.9
사회 환경	행사 및 세미나		7(1)	26(3.7)	45(1.7)	78
	대중매체	25 (1)	9(1)	17(1.9) 71 (2.8)	27(1.6) 116 (1.6)	53 212
	영재관		5(1)	8(1.6)	9(1.1)	22
	영재아의 진로 및 활약		4(1)	20(5)	35(1.7)	59
연평균기사수			5	14.2	29	15.1
총 합 계			130	213	371	714
전체 기사의 연평균기사수			26(1)	42.6(1.6)	92.8(2.2)	51

영재관련 기사의 양에 대한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점차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시기별로 영재교육 정책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양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적으로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2기 보다는 3기에 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2000년도에 제정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으로 인해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시기별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 범주를 살펴보면 1기에서는 영재교육 정책에 있어서 '체제 및 제도', 2기와 3기에서는 영재교육 정책에 있어서 '영재교육기관' 이었는데, 이는 1기에서는 아직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이 구체화되거나 보편화되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 영재교육의 제도에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2기와 3기에서는 영재교육이 제도화되고 입법화되기 시작하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별 기사의 양을 살펴보면 영재교육의 동향에서는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인식에 대한 기사의 양은 점차 줄어드는데 비해 연구 및 해외 동향에 대한 기사의 양은 점차 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구체화되면서 이미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영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연구가 활발해지고 해외 영재교육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재교육 정책에서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 매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전후로 영재학교 설립 등 영재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제도에 대한 기사는 2기에 잠시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2기에 체제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라기보다는 1기에 특정분야에 재능이 있는 중·고교생을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개별지도 하여 소질을 계발시키는 사사제 도입에 대한 기사와 월반, 유급제에 대한 기사가 신문별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대한 기사는 2기에 그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3기에는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을 앞두고 2기에 관련법에 대한 기사를 많이 게재했기 때문이다. 영재교사에 대한 기사는 극히 적은 수의 기사 양이었는데 그 이유는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판별도구의 부족, 전문적인 영재교사의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가 많아 영재교육의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 영재교육의 방향 및 발전과제에의 기사내용에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기사는 전체 기사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평준화제도에 의해 영재들도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내몰려 각자의 특성을 살리는 대신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교육풍토와 영재교육기관이 영재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없는 점 등의 기사를 다룸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재교육정보에서는 기사의 양이 1기부터 3기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내용과 비교해볼 때 매우 적은 양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신문이 독자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여 영재아의 특성과 판별, 교육내용과 방법, 부모역할이나 양육태도에 대한 비교적 전문적 기사는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환경에서는 총 기사의 양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영재교육 정책 다음으로 많은 양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이 제도화 법제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영재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영재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심에 있어서도 1기에는 '아.태 영재학술대회개막'등 전문가나 특정인에 해당하는 행사 및 세미나가 주류를 이루다가 3기에는 학부모나 교사, 아동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세미나가 증가하는 등 그 내용이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대중매체에 대한 기사내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다른 매체의 영재교육에 대한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영재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했으므로 풀이할 수 있다. 영재관에 대한 기사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영재라는 개념의 정의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영재교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영재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영재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재아에 대한 관심에 대한 기사는 좀더 현실적인 영재교육의 필요성, 영재아의 특성과 판별의 기사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재아의 진로 및 활약상에 대한 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영재교육의 효과로도 볼 수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영재교육 관련기사의 내용적 변화와 사회적 인식

가. 영재교육의 동향

1)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인식

1기에서는 내용의 상당수가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과 고교입시제부활,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체제로의 개선 필요성이 그 시기의 주요 기사내용이었다. 그리고 2기, 3기에는 영재의 조기발견과 육성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의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에 기사내용이 많았다. 이는 영재교육이 교육의 일부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의 인프라로 보는 사회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기사의 대부분이 전문가의 사설이나 공청회 내용인 점은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을 깨우치려는 전문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 영재교육의 방향 및 발전과제

1기에서는 주로 월반 및 유급제 실시를 언급한 기사가 많았고 2기에서는 다양한 영재교육기관의 설립과 영재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졌으며 3기에서는 영재교육기관의 확대 및 영재대상 확대, 영재교육 내용면에서의 검토 등에 관한 기사들로 추세를 이루었다.

1기에서 영재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경향이 2기에서는 월반제의 법제화와 만5세아 조기취학이 가능한 시기로 접어들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확일적 교과과정에서 개별화된 교육과정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영재교육의 연계로서 다양한 영재교육기관의 설립과 영재발굴 및 육성에 관한 기사들로 추세를 이루었다. 영재아들을 위한 특목고 설립 및 각종 경시대회를 통한 영재발굴,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영재들을 위한 특별학급운영 및 영재교육센터의 설립 검토 등이 영재교육의 방향과 발전과제로 제시되었다.

2기에서의 이와 같은 관심은 3기에서의 영재교육진흥법의 법제화를 가져왔고 영재교육의 인프라 구축과 영재교육기관의 확대, 설치운영 및 지원 체제 구축으로 영재교육의 새로운 모델정립을 강조하였다.

3) 연구 및 해외동향

1기에서는 영재교육모범국가 5개국의 '영재 기초과학교육과 과학연구소 운영실태'를 상, 중, 하 시리즈로 소개함으로써 과학영재의 부족을 국가의 위기로까지 인식할 만큼 과학영재교육에 힘을 기울이는 선진사례를 전국 고교생 수학, 과학 경시대회 수상자들이 연수를 통해 동행 취재하여 보고서 형식의 기사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3기에서는 '교육이 희망이다' '선진엘리트 교육의 현장', '세계의 과학영재 이렇게 키운다', '선진국의 수준별 교육사례'의 특집 기사를 소개함으로써 최근 영재교육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외국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우수인재의 육성이 시급한 중소국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영국 등의 나라에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영재교육과 미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프랑스 등 외국

의 영재교육의 역사, 정책, 교육내용과 방법, 영재교육기관, 교육체제를 상세히 기사화했다. 주요 외국의 성공사례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사회적 인식과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나. 영재교육 정책

1) 체제 및 제도

1기의 기사내용에서는 영재교육을 위해 수학, 물리, 화학 등 특정분야에 재능 있는 중, 고교생이 전문가에게 특별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사제 도입과 특수재능교육,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에 둔감했던 사실을 비판하며 특수재능아의 속진, 심화학습반 편성 방안 검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다 2기에서는 조기이수제(월반제)도입 시행에 관한 기사의 내용이 증가하였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안은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월반, 속진제는 영재교육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으론 월반제의 도입이 교우관계와 원만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95년 5월 31일에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로 조기취학 제도안이 마련됨으로써 영재성이 있는 아동들은 초등학교에 조기입학하거나 학년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 영재교육의 준비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영재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영재교육제도가 가시화되면서 3기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영재교육이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특목고의 정원 외 특별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사는 영재아들이 연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됨을 의미한다.

2) 관련법

1기에는 영재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부재로 인해 그 기사내용도 미비하다. 월반, 유급제의 구체적 기준과 학습방법, 수업연한 등을 정한 교육법과 과학인 양성의 필요성에 의해 과학영재교육진흥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기에는 영재교육의 법적 뒷받침이 되는 영재교육진흥법의 입법 마련을 주장하는 기사와 영재교육진흥법의 국회통과 내용의 기사가 많다. 그리고 3기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영재학교 설립 등 영재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기사내용이 많다. 또한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는 영재교육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에 있어 언론매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다. 즉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영재교사

영재교사에 대한 기사는 3기에 걸쳐 총 3건으로 매우 적지만 영재교육의 성패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질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 영재교육에 있어서 영재아 발굴을 위한 판별도구와 프로그램, 교원연수 등의 필요성이 영재교육에 있어서의 시급한 과제며 이런 기사내용은 영재교육의 문제점과 발전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기사화 되어졌기에 영재교사만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는 적은 양을 나타냈다. 더욱이 내용도 모두 영재교사의 문제점과 현 실태에 대한 것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영재교육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4)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기사는 영재교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교육기관의 신설과 확대로 그 기사내용도 상당히 늘어났다. 1기에서는 과학고와 국제고 신설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며 2기에서도 내용의 경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 3기에서는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영재교육센터운영과 입학선발에 대한 기사와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및 기관신설에 대한 기사가 많아졌다. 또 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 영재교육시설의 설립계획 등 영재교육기관이 많이 생기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듯 영재교육기관이 많이 신설됨을 보여준다. 한편 21세기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영재교육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가 명문대 입시의 방편으로 전락될 우려의 기사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으로 영재교육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올바른 여론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

1기에서는 월반, 유급제, 조기졸업의 제도들이 영재교육분야에서 영재아의 개별적인 필요와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황과 부작용 사례에 대한 기사들이 많다. 이는 영재교육에 대한 근본대책과 교육적 배려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월반, 유급제의 시행은 사회여건과 분위기가 이를 수용할 만큼 성숙되었을 때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기사가 많았다. 또한 조기취학에 부작용에 대하여 학교교육은 전인교육의 장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고, 1기와 2기 모두 특목고가 일류 명문대 입시의 장이 되어 그 설립목적이 크게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의 기사도 많았다. 과학고를 명문대 입학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탐구심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보다는 입시위주 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며, 또 과학고와 대학과의 연계가 되어있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2기의 기사내용 중 한국과학기술원에 최연소 입학으로 화제를 낳았던 수재의 자살기사는 개성과 소질보다는 획일적인 시험성적으로 개인의 우열을 판별하는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재교육의 중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영재를 선별하고 수용하며, 그들의 진가를 발휘하도록 할 교육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임을 알 수 있다. 2기 후반으로 갈수록 제도권 내 영재교육이 과학고에서 이뤄지지만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어 영재교육진흥법의 빠른 통과를 요구하는 기사들이 많다. 또 평준화라는 틀 속에 가려져 외면당하고 있는 영재들을 범재로 전락시키는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도 많아진다. 3기에서는 영재진흥법 통과로 영재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기영재교육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기사가 늘어났다. 또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발효된 후 사실 영재교육기관이 많이 생기면서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선행학습 학원이 영재교육기관의 이름으로 난립하는 실태에 대한 기사가 많다. 이는 영재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경시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아이가 무조건 영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의 잘못된 인식으로 기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신문은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기사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역할과 함께 정보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매체임을 알 수 있다. 또 영재교육이 제도권 내에서 가능해 집에 다라 영재판별도구의 미비, 영재교육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부족, 특수 실험 기자재의 부족, 영재교육 전문교사 부족등 문제점에 대한 기사가 많은 추세다.

다. 영재교육 정보

1) 영재아의 특성과 판별

1기와 2기의 기사내용 대부분은 영재아의 판별의 기사보다 영재아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이것은 영재교육이 제도화되지 않아 영재교육기관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영재판별도구의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기의 기사에서는 영재아의 특성과 영재판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들이 많아졌고, 영재판별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실고 있다. 이는 영재아의 체계적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이 중요하며 영재교육진흥법이 통과되어 영재교육이 기틀을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내용과 방법

1기에는 해당되는 기사가 없다. 영재교육기관이 활성화되지 않아 대중의 관심거리가 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안을 통해 발표한 속진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3기의 기사내용은 방과 후 영재프로그램, 과학영재학교의 교과운영과정,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영재 교과과정과 교육내용, 영재교육원에서의 영재교육 등 그 내용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영재교육에 있어 교육운영의 지원과 교재개발, 교수학습 연구와 사사교육 확충 지원과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나타내며 영재교육의 내실화 강화가 중요한 만큼 정책적인 관심과 교재개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3) 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

영재면 무조건 좋다는 인식에서 조기영재교육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찮은 풍토에서 영재열풍은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영재교육이 제도화되었지만 영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재아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 양과 내용은 제한적이다. 1기부터 3기까지 거의 모든 기사가 영재교육을 시키는 결과로 인해 만들어진 영재아의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사가 많았다. 실제 영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영재부모이야기는 2건으로 모두 인터뷰식 기사로 일반대중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사형태로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영재아에 대한 부모의 기대, 그리고 영재아의 특성이 학습능력과 반드시 비례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바라는 기사로 보이며 성공적인 영재

교육을 위해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라. 사회 환경

1) 행사 및 세미나

영재교육에 대한 활성화로 행사 및 세미나의 내용은 점점 다양해지고 그 양도 많아졌다. 1기에서는 그 양도 적고 행사 및 세미나의 주제도 극히 전문가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세미나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 즉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2기와 3기에는 국내외 경진대회에 대한 기사내용의 수가 많이 나타났다.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영재아를 선발, 육성함으로써 세계적 핵심의 인재양성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영재아들이 두뇌경쟁을 통해 도전의식을 함양하고 세계의 과학영재들과의 교류기회 제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미나의 내용도 상당히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사내용도 있었다. 3기에 와서 행사의 대상이 다양해졌으며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도 늘어나고 있어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중매체

1기에서 3기까지 큰 내용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2기에 와서는 과기원의 원격영재교육에 대한 기사를 시작으로 3기에서는 인터넷사이트 소개에 대한 기사내용이 많다. 특히 인터넷 교육사이트 소개, 영재교육기관소개 등으로 일반대중도 쉽게 영재교육기관과 교육내용, 방법을 접할 기회가 다양해짐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증가한다고 하겠다. 일반대중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매체인 TV프로그램에 대한 기사 중 대부분이 세계의 고급 두뇌양성을 위한 노력과 집념에 대한 것과 외국의 영재교육을 집중소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인식을 위해 선진사례를 봄으로써 영재교육의 이해를 돕는데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3) 영재관

영재관에 관한 기사내용은 잘못 알고 있는 영재관을 바로 잡으려는 기사가 많다. 2기, 3기에서는 다양한 영재관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콜먼의 감성지능에 관한 영재관, 미성취

영재에 대한 영재관등의 기사내용도 있었다. 지능지수와 좋은 성적만이 영재의 정의가 될 수는 없으며,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능력 등 여러 요인들이 영재정의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4) 영재아의 진로 및 활약

영재아의 진로 및 활약상의 기사내용을 보면 특목고 학생들의 국내외 대회 입상소식과 예술영재의 공연과 예술종합학교 입학소식 등이 많았다. 1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예술영재의 국제음악경연대회 수상소식이며 2기의 기사에서는 수학영재의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성적,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의 활약, 국제청소년 물리탐구 토론대회에서의 활약, 특목고 학생들의 국내외 대회 성적들과 활약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3기의 기사에서도 국내외 대회의 입상소식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한다. 이는 신문이 영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와 이해증진의 정보제공자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영재아의 진로가 반드시 국가의 필요한 인재로서의 역할을 못한 내용의 기사도 있었다.

영재교육은 영재아의 조기발굴과 육성, 교육의 내실화, 교육내용의 고도화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강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영재들은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잘하게 되리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인하여 영재들을 위한 특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반 아동들과 같은 교육을 받게 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보가치 창출 가능성은 이들의 특성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때에만 발휘될 수 있다. 모든 아동이 각자의 적성, 특성, 소질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바, 영재들도 자신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재교육의 공식적 역사는 아주 일천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을 것이다. 특히 영재의 발굴에서부터 영재교육의 연계성과 연속성은 미래의 인재확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영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학교교육의 반영재교육적 분위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영재는 출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002년 4월 18일자로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이 법적, 제도적 기초를 갖게 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내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영재교육 관련기사 714건의 기사의 양과 내용을 분석하여 시기별 경향을 알아봄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총 기사 수는 714건이었으며 1기(1990년-1994년)에는 130건, 2기(1995년-1999년)에는 213건, 3기(2000년-2003년)에는 37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그 기사 수는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2기 보다는 3기에 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2000년도에 제정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으로 인해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영재교육에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시기별로 보았을 때는 1기에는 체제와 제도에 관련된 기사가 많았으며, 2기에는 영재교육기관과 행사 및 세미나에 관한 기사가 많았으며, 3기에는 영재교육기관과 연구 및 해외동향에 대한 기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영재교육의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많은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영재교육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영재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국내외에 연구와 해외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선진영재교육의 흐름을 받아들여려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기마다 그 내용이 영재교육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미 형성되었으며, 이제는 영재교육의 법제화를 통해 영재교육기관과 제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형성 시기에 있다. 그러나 영재판별이나 교육 방법 등의 구체적인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미비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는 영재교육을 위한 세부적인 분야의 연구를 통해 영재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영재교육의 정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활발하게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신문을 대표할 수 있는 국내 주요일간지 4개의 신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다른 신문과 대중매체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영재교육이 어떠한 정보와 경향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 관련기사만을 분석하였으나 신문에 나타난 다른 교육 관련 기사와 비교 분석하여 영재교육 관련기사의 특성과 비중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교육 테두리 안에서의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인식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관련기사가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와 2003년까지의 기사만을 연구하였으나 보다 광범위한 시기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사를 분석해봄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인식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위해 본 연구가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재교육에 대한 여러 다양한 연구의 결과가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됨으로써 올바른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이 연구가 보여주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안인식(1986). 신문에 나타난 교육관련 기사분석-1960년부터 1979년까지.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재학(1997).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분석-1995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영성(1990). 신문의 교육관련기사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용업(1975). 주요일간신문의 교육관계사설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하병숙(2001). 유아교육 관계기사 분석-1965년부터 2000년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석사학
위논문.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경선(2003). 여성잡지에 실린 아동관련 기사분석-여성동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 동아일보. 1990.01 - 2003.12.
- 조선일보. 1990.01 - 2003.12.
- 중앙일보. 1990.01 - 2003.12.
- 한국일보. 1990.01 - 2003.12.
-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 <http://www.kinds.or.kr>.
- 모아드림 홈페이지. <http://www.moadream.co.kr>.

Abstract

Social Perception on Gifted Education

In Hye Kim
Jung Ok Park
Moon Kyung Choi
(Kyungwon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ontents and amount of articles on gifted education in major daily newspapers dated January 1990 to December 2003, and to review the trend of social perception of gifted education with the passage of time.

Following are the research question :

1. How many articles belonging to the same category appeared in the newspapers within the period of time covered by the study?
2. What kinds of articles appeared in the newspapers within the period of time covered by the study?

To arrive at the answers to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714 articles on gifted education. The period from 1990 to 2003 were divided into time frames of 5 years to facilitate the analysis of social consciousness regarding gifted education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Early School Entering Law in 1995 and the Law for Promotion of Gifted Education in 2000. The researcher defined Period I as the years from 1990 to 1994, Period II from 1995 to 1999, and Period III from 2000 to 2003.

The articles were classified by content which were significance and trend of gifted education, current policies on gifted education, information on gifted education, and social environment of gifted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1) The articles from 1990 to 2003 totalled 714. 130 articles were found within Period I, 213 within Period II, and 371 within Period III. Since the year 2000, when the Law for Promotion of

gifted education was enforced, the amount of articles considerably increased. The articles on the trend of gifted education numbered 42 within Period I, 49 within Period II, and 81 within Period III, showing a huge increase in the last period. The articles on current policies numbered 56 within Period I, 77 within Period II, and 143 within Period III, numbering the most in the last period. This means that, even before the Law for Promotion of gifted education was enforced, there has been much interest in and discussion of the appropriate educational system for gifted children in preparation fo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of such system.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law, many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and the problem became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 articles that most frequently appeared were about current policies on and status of gifted education. This category showed the largest numbers through all the three periods and on all the subjects. This subject represented 43.1% of the articles on gifted children within Period I, 36.2% within Period II, and 38.6% within Period III. As to the significance and trend of gifted education, this subject showed a decrease from 32.3% within Period I, 23% within Period II, and 21.8% within Period III. However, the articles in the category of information on gifted education gradually increased from they represented 5.4% of the articles on brilliant children within Period I, 7.5% within Period II, and 8.4% within Period III. The social environment articles showed an increase from Period I to Period II-- from 19.2% to 33.3%, but it went down to 31.3% within Period III.

(2) As to articles on the trend of gifted education, there were many such articles found, mainly on researches and trends in other countries. As greater importance is accorded to gifted children and as the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providing specific education for them grows, more related studies are conducted and people try to adopt new trends from other countries. For the articles on the current policies of gifted education, most of them were about institutions. This means that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since the Law for Promotion of Gifted Education was enforced. Informative articles on gifted education were mostly about distinctive features of gifted children and how to tell who the brilliant children are. This fact shows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gifted children in order to educate them systemically and effectively. It likewise shows that parents wish that their kids were gifted.

Social environment articles were mostly about events and seminars. As education for gifted children became institutionalized, the related events and seminars increased and the subjects and participants seemed to become varied.

keywords : gifted, gifted education, social perception on gifted education